

■ 겨레의 창

## 코리아학 국제학술토론회에서 만난 겨레말큰사전 북측 편찬위원

최호철 / 겨레말큰사전 편찬위원,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2013년 8월 22~23일 양일 동안 중국 광주(廣州) 광둥외어외무대학(廣東外語外務大學)에서 국제고려학회(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가 주최한 제11차 코리아(Korea)학 국제학술토론회가 열렸다. 이 학술토론회에는 13개 국가에서 120여 명이 참석하였고, 언어, 문학 등 8개 분야에서 총 77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국제고려학회(<http://www.isks.org>)는 1990년 8월 5일, 일본 오사카 국제교류센터에서 개최된 제3회 국제학술토론회에서 코리아학의 활발한 연구와 그를 통한 학자들 사이의 교류를 목적으로 창립되었는데, 현재 아시아(중국) 분회, 일본 지부, 북미 지부, 유럽 지부, 서울 지회, 평양 지부 등 6개 지부로 구성되어 있다.

코리아학 국제학술토론회는 1986년 8월에 제1회 회의가 북경에서 개최된 이래 지금까지 열한 차례의 회의가 열렸는데, 많게는 대한민국과 북한을 비롯한 14개 국가에서 1000명이 넘는 학자들이 11분과에서 활발한 학술토론을 전개함으로써 남북한 학자들의 교류를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이러한 학술토론회는 남북의 대화 여건이 조성되지 못한 경우에 그나마 학술적 교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특히 겨레말큰사전 남측 편찬위원으로서 북측의 편찬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했기에 북측 편찬위원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이 학술토론회에 가는 기대가 매우 컸었다.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 편찬회의는 2005년에 시작하여 2009년 12월까지 제20차 회의를 끝으로 현재까지 4년 동안 개최되지 못함으로써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은 그만큼 순연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에서는 본래 사업기간을 2014년 4월까지 정했던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을 개정하여 2019년 4월까지 연장하였다.

제11차 코리아학 국제학술토론회에 참여한 북측의 학자는 모두 9명으로서 그 가운데에는 언어학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 편찬회의 때마다 마주했던 정순기 선생이었다. 먼저 노학자인 선생의 건강과 근황을 묻는 인사로 시작하여 4년 만에 만나는 반가운 마음을 서로 주고받게 되었다.

정순기 선생은 현재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에 근무하는데 초창기 북한의 국어사전 편찬에서부터 현재까지 줄곧 중심적인 역할을 해 온 사람으로서 북한 국어사전 편찬의 권위자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의 사전편찬에 관한 경륜에서 무려나오는 풍부한 경험은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에서 좋은 사례로 활용되고 있다.

언어분과 토론회에 정순기 선생과 함께 참석한 필자는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과 관련하여 북측의 진행 상황이 궁금하여 쉬는 시간에 짬을 내서 물었다. 필자와 나눈 아래의 대화에서 보듯이 4년 동안의 남북 공동회의 중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순조롭게 진행되어 오던 편찬사업이 수포로 돌아간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최: 현재 북측의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 남북 공동회의가 중단된 상황에서 진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연구소 자체 과제를 하기에다 바빠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최: 그래도 북측이 분담하여 맡은 부분은 자체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정: 남측의 편찬위원회가 해산된 거 아닙니까?

최: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측은 그동안 분담하여 맡은 부분의 집필을 다 끝낸 상태입니다. 나아가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을 개정하여 사업기간을 2019년 4월까지 연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 그렇습니까? 들어가서 문영호 편찬위원장에게 전해야 하겠습니다.

최: 그러십시오. 남북 공동회의는 일시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남북이 각각 맡은 부분은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여건이 조성되어 남북 공동회의가 개최될 때 지체함이 없이 곧바로 상호 검토 작업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영호 편찬위원장에게 이러한 상황을 꼭 전하십시오.

겨레말의 통일과 보존을 위해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 편찬사업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디딤돌이 되기 때문에 어렵게 성사시킨 남북공동 편찬사업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중도에 포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 편찬사업은 이름 그대로 남북이 서로 만나 협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긴 시간과 피나는 노력으로 정성들여 쌓을 돌담이 도중에 무너지는 것을 좌시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남북이 서로 만나 공동으로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해 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중도에서 그만두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먼 훗날 후손이 우리에게 물었을 때 우리는 떳떳하게 나설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 편찬사업은 주어진 기간에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한겨레로서 남북이 서로 만나 달린 마음을 열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것이다. 우리말의 민족적 통일 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대승적인 견지에서 하루속히 남북공동 편찬회의가 속개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 우리말 돋보기

### 다시 살펴보는 우리 말글살이

— 구법회 / 한글학회 정회원, 전 연수중 교장



우리는 하루 종일 말을 하면서 살아간다. 말로써 의사소통을 하고 말을 하며 일을 한다. 때로는 글자를 읽어 길을 찾기도 하고 정보를 얻으며, 필요할 때는 글자를 쓰기도 한다. 우리는 한국어로 말을 하고 세계의 으뜸 글자인 한글로 말글생활을 하고 있으니 행복하다. 지금 우리 말과 글은 세계의 언어로 발돋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말글살이의 현실은 어떠한가? 부끄러운 곳이 많아 안타깝다. 어떤 이는 요즘이 우리말의 위기라고까지 말한다. 우리말이 세계로 뻗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말을 우리말답게 다듬고 가꾸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잘못된 우리 말글살이를 바로 잡아 우리말이 가야 할 바른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1. 조식, 중식, 석식이 우리말인가?

여행이나 연수회를 할 때 일정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말이 조식, 중식, 석식이다. 이런 말은 특수한 경우에 간혹 쓰긴 하지만 우리말이 아니다. 일본식 한자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조식 잡수셨습니까?”, “과장님, 중식 드세요.”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말이 아니라는 증거다.

이밖에도 공공 문서나 생활 언어에서 쓰는 어려운 한자어는 쉬운 말로 고쳐 쓰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하야백→아래빈칸, 빈칸, 석가탄신일→부처님 오신 날, 춘계소풍→봄 소풍, 상기(上記)→위(에 적은), 공차(空車)→빈차’로 쓰면 한결 우리말답다. ‘노견(路肩)→갓길, 추월→앞지르기’처럼 한자어를 토박이말로 바꾸어 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동아리, 새내기, 먹거리’와 같은 말들을 젊은이들이 살려 쓰는 것은 우리말의 미래를 밝게 해 주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 2. ‘임의 침묵’인가, ‘님의 침묵’인가?

사모하는 사람을 ‘임’이라 한다. 중세국어에서는 ‘님’이라 했지만 현대국어에서는 두음법칙에 따라 ‘임’으로 적고 발음도 [임] 으로 해야 한다. 만해 한용운의 시 ‘임의 침묵’도 원본에는 ‘님’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은 ‘임’으로 적어야 한다. (한글 맞춤법 제10항)

대중가요 제목이나 노랫말에는 ‘임’이란 말이 많이 나온다. 나훈아의 ‘임과 함께’는 요즘도 \*방송의 가요무대에서 간혹 듣는다. 방송 자막을 보면 제목이나 노랫말을 모두 ‘님’으로 적고 가수의 발음도 [님] 이다. 어떤 노래는 ‘님이라는 글자에 접하나만 찍으면 남이 된다.’는 가사도 있다. 두음법칙은 발음의 경제성을 따져서 만든 것이다. 북한에서는 발음이 힘든 대로 그냥 쓰기도 하지만 ‘녀자, 계의, 로동, 남’보다는 ‘여자, 예의, 노동, 임’이 발음하기 쉽고 그렇게 많이 쓰니까 만든 규칙이다. 우리 모두가 이 규칙에 따라야 하고 방송에서는 특히 유념해서 써야 한다.

#### 3. 올레길과 돌레길(?)

올레는 큰길에서 집 대문까지 들어가는 아주 좁은 골목길을 뜻하는 제주 토박이말이다. 제주 옛말로는 ‘오라, 오래’의 뜻이 담겨 있다고 한다. 요즘엔 ‘제주에 다시 올레?’라는 귀여운 말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그러나 관광객들에게 소개하는 올렛길이란 제주도에서 올레처럼이란 관광길을 개발한 것이다. 집 앞이 아닌 바닷가를 따라 인위적인 길을 만들어, 걷기 쉬우면서도 제주 바닷가의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길을 가리킨다. 본디 올레와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제주도의 올렛길이 인기를 끌자 전국에 돌렛길이라는 것이 많이 생겼다. 대표적인 돌렛길은 지리산, 북한산 등에 잘 조성되어 있다. 그밖에도 각 도시 주변의 산에 지자체에서 돌렛길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걷기 운동이나 산책로로 널리 애용하고 있다.

여기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올렛길과 돌렛길에 대한 표기의 문제다. 지금 ‘올레길’은 굳어질 정도로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고 있으며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돌렛길의 이름도 대부분 ‘돌레길’이라 쓰고 있다. 이들은 ‘토박이말+토박이말’의 합성어로 뒤에 오는 ‘길’이 된소리가 나므로 모두 사이시옷을 붙여 ‘올렛길’, ‘돌렛길’로 써야 옳다. (한글 맞춤법 제30항)

#### 4. 언론에서 잘못 쓰는 말들

-바라겠습니다 : 이 말투는 방송사 마나운서들이 쓰기 시작하여 일반 행사 진행자들도 쓰고 있다. ‘-겠-’은 추측, 의지, 능력, 희망 등의 문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희망’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바라다’에 ‘희망’의 뜻이 겹치므로 어색한 것이다. ‘원하겠습니다, 희망하겠습니다’가 어색한 이치와 같다. 이는 ‘바랍니다’로 써야 한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 방송에서 저녁 인사말로 흔히 쓴다. 이 말에서는 ‘되다’가 어색하다. 여기에 듣는 주체를 넣어 ‘당신은 편안한 밤이 되시오.’라고 고쳐보면 이 말이 틀렸음을 알게 된다. 이는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정도로 고쳐 써야 옳다. ‘좋은 하루 되세요, 즐거운 명절 되세요.’ 등도 마찬가지다. ‘행복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도 어법에 맞지 않는 말이다. 우리말은 형용사에 명령형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지내십시오.’와 같이 보조동사를 겸해 써야 어색하지 않다.

‘-에’와 ‘-에게’ : 신문에서 ‘-에게’를 쓸 자리에 ‘-에’를 흔히 쓴다. ‘-에’를 ‘-에게’의 줄임말로 쓰는 것 같다.  
-----  
아내 출산 중 내연녀에 “사랑해”(2013.11.7, <일보>)

위 신문 표제에서 ‘내연녀’는 ‘내연녀에게’로 고쳐 써야 한다. ‘-에게’는 [+유정성] 뒤에 쓰이고 ‘-에’는 [-유정성] 에 쓰인다. ‘공과금을 은행에 냈다. 공과금을 은행 직원에게 냈다.’처럼 그 쓰임이 다른 것이다. 신문의 특성상 글자를 줄여 쓴다 해도 ‘-에게’를 ‘-에’로 쓰는 건 어법에 맞지 않다.

#### 5. 외래어에 잠식당하는 우리말

제일 큰 문제는 우리 말글이 외래어(외국어)에 잠식되어 가고 있다는 현실이다. 회사이름이나 간판, 광고, 상품, 아파트이름 등 우리 주변이 온통 외래어로 얼룩져 있고, 우리말 속에는 ‘오븐하다, 쿨하다, 해피하다, 디테일하다’처럼 영어의 줄기에 가지(-하다)를 붙여 쓰는가 하면 ‘삼자’는 ‘박스’, ‘열쇠’는 ‘키’로 둔갑하여 우리말 속에서 영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

여기에 언론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리콜(결함보상), 워킹맘(직장인엄마), 매니페스토(참공약), 스펙(공인자격증), 힐링(치유), 발레파킹(대리주차), 투잡(겸벌이), 블랙아웃(대정전) 등 신생 외래어를 만들어 자꾸 퍼뜨리는 역기능을 하고 있다. 경제용어나 정보 통신 용어는 어려운 외래어가 더 많다. 이런 말들은 시간이 흘러 사용자수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심의를 거쳐 인터넷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에 표제어로 올리게 된다. 외래어가 국어사전에 자꾸 늘어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들 외래어의 남용을 줄이는 일은 언론의 몫이 크다고 생각한다. 언론은 수시로 밀려드는 외래 용어를 우리말로 바로 번역해서 써야 하고, 언론사 나름대로 용어의 차이가 생기면 나중에 심의를 통해 적합한 말로 통일하면 될 것이다.

국립국어원은 누리집에 ‘우리말 다듬기’라는 연결 사이트를 만들어 우리가 흔히 쓰는 외래어(외국어)를 우리말로 다듬는 일을 하고 있다. ‘리플→덧글, 웰빙→참살이, 내비게이션→길도우미, 이모티콘→그림말’ 등 390여 개의 낱말을 우리말로 바꿨으나 그 성과는 미흡하다. 이것은 언어 습관을 바꾸는 것이 그리 쉽지 않으며 이런 말들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탓도 있으리라. 다듬은 우리말을 언론에서 먼저 쓰고 이를 널리 알리면 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지금까지 부분적이지만 우리 말글살이의 잘못된 모습을 살펴보고 바르게 다듬어 나가야 할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우리 말글을 바르고 온전하게 가꾸어야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글은 세계의 으뜸 글자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를 온 누리에 펼치기 위한 날갯짓을 시작했다. 2009년 짜야짜아족을 시작으로 볼리비아의 아이마라족, 최근엔 솔로몬 군도의 소수민족들에게 한글 보급을 하고 있다. 한글뿐만 아니라 사용자 수로 본 한국어의 순위는 세계 5천여 개의 언어 중 12위에 올라 있다. 최근 지구촌은 한류 열풍과 함께 한국어 공부의 열기도 대단하다.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대학에 한국어학과 설치 대학이 급증하고 있다.

우리는 미래에 한글을 바탕으로 한국어가 세계 공용어가 될 것을 믿으며, 우리 말글을 바르게 가꾸어 그 품격을 높이는 일에 힘을 모을 때다.

■ 남녘말 북녘말

## 바쁘다

김환서 / 겨레말큰사전 책임연구원

바쁘다. 바쁜 일상이다. 맞벌이 부부에게 아침만큼 바쁜 시간은 없다. 애들 깨우고, 씻기고, 옷 입히고, 밥 먹이고... 애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출근하려면 이 모든 일들을 일사불란하게 후다닥 해치워야 한다. 여기서 조금만 틀어지면 그날은 100% 지각이다. 그래서 평일 아침은 너무나 바쁜 나머지 전쟁을 치루는 기분마저 든다.

회사에 오면 또 바쁘다. 이래저래 쌓여 있거나 밀린 일을 처리하느라고 정신 사나울 정도로 업무 시간이 후딱 가버리고 어느새 퇴근 시간이다.

퇴근 후 집에 와도 바쁨은 떠나질 않는다. 애들 저녁 먹이고, 씻기고, 놀아주고, 재우려고 애쓰다 보면 두세 시간이 훌쩍 지나간다. 애들 자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내일 아침은 더욱 분주해진다. 그래서 '애들이 일찍 자 주는 것이 효도다'라는 말이 나온 것 같다.

이상이 '바쁘다'에 담겨 있는 기본 의미이다. 남과 북의 사전 모두에서 ①번 의미로 채택했다는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	조선말대사전
<b>바쁘다</b> ① 일이 많거나 또는 서둘러서 해야 할 일로 인하여 짠 겨를이 없다.	<b>바쁘다</b> ① 일이 많거나 급히 해야 할 일로 겨를이 없다.

그런데 '바쁘다'의 북쪽 용례를 찾아보면 남쪽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용례들이 나온다.

- 그렇지만 자동차 기종기로 25도까지 들어준 상태에서는 권양기의 힘으로 들 수 있습니다. 다만 한계점을 극복할 때까지 권양기를 세우지 않으면 됩니다. 권양 제동기가 견디며 내기 {바쁘니까요}. 《최성진: 높이 솟은 탑》
- 그는 힘겨웁게 일하는 목이 쪽으로 다가 와서는 "{바쁘지} 않아요?"하고 물으면서 목이의 삼자루에 손을 내밀었다. 《허춘식: 노래》
- "도적잡을 자다가 험한 게 아니요? 회의를 하다 말구 어딜 나가는가 말미요?" "험한 게 아니라 저... 참기가 좀 {바빠서}..." "마동석은 아랫배 근방을 움켜쥐고 아이들처럼 울상을 지어보이었다. 《변희근: 뜨거운 심장》

위의 용례들을 읽어보면 ①번 풀이를 대입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사전에 있는 나머지 풀이와 위의 용례가 서로 맞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남쪽에서만 쓰이는 '바쁘다'의 의미를 아래와 같이 4개로 한정하고 있다.

- ① 일이 많거나 또는 서둘러서 해야 할 일로 인하여 짠 겨를이 없다.
- ② 몹시 급하다.
- ③ 한 가지 일에만 매달려 짠 겨를이 없다.
- ④ 어떤 행동이 끝나자마자 곧의 뜻을 나타낸다.

어느 것 하나 위에서 든 북쪽 용례에 해당하는 의미가 없다. 즉, 북쪽 용례에 있는 '바쁘다'의 의미는 남쪽에서는 쓰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쪽 화자들에게 낯선 '바쁘다'의 의미를 확인하려면 '바쁘다' 대신에 '힘들다'를 넣어서 읽어보면 된다. 그러면 의미가 명확하게 와 닿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북쪽은 남쪽과 달리 '바쁘다'를 '힘에 부치거나 참기가 어렵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과 북은 '힘들다'에서도 의미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	조선말대사전
<b>힘들다</b> ① 힘이 쓰이는 면이 있다. ② 어렵거나 곤란하다. ③ 마음이 쓰이거나 수고가 되는 면이 있다.	<b>힘들다</b> ① 힘이 쓰이며 없어지다. ② 어렵거나 곤란하다.

이런 차이 때문에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남과 북의 수험생들에게 아래와 같은 동일한 질문을 하면 같은 의미이지만 서로 다른 표현의 답을 할 수 밖에 없다.

질문: 요즘 공부하는 것 어때?

남쪽 학생의 답: 공부하기가 **힘듭니다**.

북쪽 학생의 답: 공부하기가 **바쁘니다**.

※ 이 글은 광주광역시 교육청 소식지 <광주교육 12월호>에도 연재되었습니다.

■ 뜻풀이 킵고 더하기

## 민속경기 '널뛰기'

권혜진 / 겨레말큰사전 연구원

사전에 수록될 올림말을 검토하다 보면 전문 영역을 설정하거나 확정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 이유는 일반어와 전문어를 가르는 기준이 사전마다 다르고, 전문 영역을 설정하는 기준도 사전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명절이 다가오면 텔레비전에서나 가끔씩 민속놀이를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평상시에는 우리 주변에서 민속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민속놀이 중에서 '널뛰기'를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자. 《표준국어대사전》과 《조선말대사전》에 실린 '널뛰기'의 뜻풀이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올림말	뜻풀이(정의항)	
	표준국어대사전	조선말대사전
널뛰기	《민속》 긴 널빤지의 중간을 괴어 놓고 양쪽 끝에 한 사람씩 올라서서 번갈아 뛰어 오르는 놀이. 우리나라 고유의 놀이로 주로 음력 정월이나 단오, 추석에 여자들이 한다.	민족경기의 한가지. 고임목우에 길게 놓은 널판의 양끝에서 서로 엇바꾸어 뛰어 오르고와 내려밟기를 하는 경기이다. 경쾌하고 룰동적이며 재치있는 뛰기운동으로 다리힘살을 튼튼히 하고 공간지각을 발달시키며 대담성, 용감성 등을 키운다.

위와 같이 두 사전의 '널뛰기' 뜻풀이를 살펴보면 전문 영역 설정이 다를 뿐만 아니라, 뜻풀이에도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위의 뜻풀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생긴다.

- 가. '널뛰기'는 《민속》 전문어인가? 《체육》 전문어인가?
- 나. 남과 북의 뜻풀이의 차이점을 적절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널뛰기'를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민속놀이'라는 점에 핵심을 두어 전문 영역과 뜻풀이를 제시하였으며, 《조선말대사전》에서는 '경기'라는 점에 핵심을 두어 뜻풀이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조선말대사전》에서는 엇바꾸어뛰기, 재주뛰기, 창작뛰기와 같이 널뛰기 경기 종목을 《체육》 전문어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널뛰기'를 단순한 민속놀이가 아닌 운동 경기로 제시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각각의 사전에서 다르게 제시되고 있는 '널뛰기'의 뜻풀이는 대략 다음과 같이 고칠 수 있을 것이다.<sup>1)</sup>

◆ 고친 뜻풀이

**널뛰기** [널 : 뛰기] [명]

- ① 《민속》 긴 널의 가운데를 괴어놓고 양쪽 끝에 한 사람씩 올라서서 번갈아 뛰어오르는 놀이. 우리나라 고유의 놀이로 주로 음력 정월이나 단오, 추석 때 여자들이 한다.
- ② 《체육》 널을 뛰면서 정해진 동작을 하여 그 완성도 등을 겨루는 경기.

위와 같은 방식으로 남북의 차이를 아울러 뜻풀이하면 남과 북의 언중들의 실제적인 사용을 반영한 사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민속경기는 널뛰기뿐만 아니라 씨름, 그네뛰기, 활쏘기, 줄다리기 등이 있다. 이들 민속 경기에 대해서도 남북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남과 북의 언중들이 《겨레말큰사전》에서 단어를 찾아볼 때, 의아해하는 부분이 없이 서로의 문화적 차이점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뜻풀이를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1) 《조선말대사전》에 제시된 <엇바꾸어뛰기, 재주뛰기, 창작뛰기>의 뜻풀이는 다음과 같다.

- ㄱ. 엇바꾸어뛰기 [명] ① 《체육》 네명이 한조가 되어 널판을 멈추지 않고 서로 엇바꾸어 뛰는 널뛰기의 하나. 한쪽에 두명씩 조를 짜서 2미터이상의 높이에 오르면서 2분동안 24회이상 엇바꾸어 반칙없이 뛰면 10점을 받는다.
- ㄴ. 재주뛰기 [명] 《체육》 부채, 소고, 수건, 땀기, 반고, 훈 등의 기구를 가지고 갖가지 재주를 부리면서 뛰어오르고내리는 널뛰기종목의 하나.
- ㄷ. 창작뛰기 [명] 널뛰기경기의 한가지. 기구없이 또는 기구를 가지고 여러가지 동작을 하면서 된다.

겨레말큰사전 편찬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 드립니다.  
2014년에도 뜻하시는 일들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겨레말큰사전 2013 12

누리판

겨레의 창 · 우리말 돋보기 · 뜻풀이 깊고 더하기 · 남녘말 북녘말 · [겨레말 소식](#)

## ■ 겨레말 소식

### 제25차 정기이사회 및 제63차 남측편찬위원회 개최



지난 12월 23일 제25차 정기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고은 이사장을 비롯해 권재일, 김하수, 민현식, 양봉진, 전영선, 조재수, 홍종선 이사와 김명영 상임감사가 참석한 이번 이사회에서는 <2013년도 예산 집행 및 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2014년 예산(안) 및 사업계획(안)>과 <규정 개정(안)>이 승인되었다.

한편, 지난 12월 26일에는 제63차 남측편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홍종선 편찬위원장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부서별 2014년 사업 계획>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겨레말큰사전 편찬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 드립니다.  
2014년에도 뜻하시는 일들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PDF인쇄 | 지난호보기

# 겨레말큰사전 2013 12

누리판

겨레의 창 · 우리말 돋보기 · 뜻풀이 깊고 더하기 · 남녘말 북녘말 · [겨레말 소식](#)

## ■ 겨레말 소식

### 사전 편찬 전문가 초청 자문회의 개최



사업회는 지난 12월 20일 국내 사전 편찬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겨레말큰사전》 집필 원고를 소재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자문회의에는 도원명(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사전편찬부 부장), 안상순(전 금성출판사 사전 팀장), 안의정(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 연구교수), 양명희(중앙대 국어국문과 교수), 이금희(성균관대 국어국문학부대학 초빙교수),

정병호(전 두산동아), 정희창(동덕여대 국어국문과 교수) 등 여러 사전 편찬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이들은 각각 《겨레말큰사전》 집필 원고를 검토하고 평가하여 향후 집필 방향의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여러 검토 의견에 대해 한용운 편찬실장은 “여러 제안한 내용은 향후 원고 집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뜻풀이를 더욱 쉽게 하고 비문법적인 표현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주목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뜻을 전하며 회의를 마무리 지었다.